

사유림 경영의 답을 찾다8

보성군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글+사진 김흥중(한국농업신문 기자)

보성군은 전라남도 중남부에 위치하였고, 북쪽으로부터 서남쪽으로는 고지대로 화순군, 장흥군, 고흥군, 순천시와 접계를 이룬다. 남방은 회천, 득량, 조성, 벌교의 4개 읍면이 해안과 맞닿아 있다. 전라남도 내에서 비교적 고지대에 속하는 보성군은 전체 토지 면적(66,329ha) 가운데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62.3%(41,320ha)나 될 정도로 대부분 산으로 이뤄져 있다. 남해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산간지대이기에 완만한 평야 지역은 보기 드물다.

이곳에 둥지를 튼 보성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이하 봉화산 선도단지)는 2014년 첫 삽을 뜬 이래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 산주 소득증대 등을 위해 활발한 산림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단지 면적은 2,525㏊로, 인공림 831㏊, 천연림은 1,632㏊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림 1,070㏊(42.3%), 활엽수림 590㏊(23.3%), 혼효림 803㏊(31.8%), 무립목지 62㏊(2.5%)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봉화산 선도단지는 보성군산림조합(이하 보성조합)이 경영주체가 되어 추진되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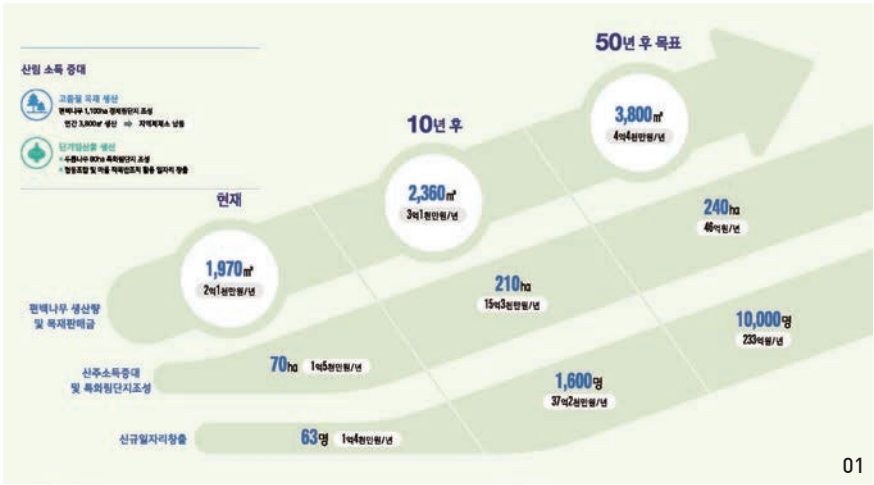
사유림 경영 성공 모델林 실현

봉화산 선도단지는 사유림 경영의 성공 모델로 변모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사업의 첫발을 뗐다. 산주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산림경영단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봉화산 선도단지는 이를 위해 목재생산을 통한 소득창출, 지속가능한 목재생산림 조성, 산림기반시설 확대, 산림복합경영을 활용한 단기소득 창출 등 중점적인 전략을 세웠다.

단지 내 945명의 산주와 함께 사업 기간인 10년 동안 조림 414ha, 숲가꾸기 2,042.3ha, 임도 56.12㎞ 개설을 계획했으며, 올해 6월까지 조림 378ha, 숲가꾸기 1,688.9ha, 임도 52.62㎞ 개설 등을 완료했다.

봉화산 선도단지는 특히 '목재생산림' 조성에 집중했다. 목재생산림이란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이다. 봉화산 선도단지에는 전체 사업 면적 중 이미 56.6%인 1,429ha가 목재생산림이었기에 목재생산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주목했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편백을 경영주수종으로, 황칠나무와 참가시나무를 경영부수종으로 선정하고 산림경영에 나섰다. 불량림을 편백나무 등으로 수종 갱신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림으로 탈바꿈시켰고, 숲가꾸기 사업을 적기에 병행해 새로 조성한 경제림의 안정적인 생육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사업 9년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숲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사유림 경영을 위한 임도 시설 확대, 임목 수확 등 조림지 확보와 편백나무 임지 확대 등으로 목재생산림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01


02

01 봉화산 선도산림경영단지 경영목표
02 편백 조림지

봉화산 선도단지는 산주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재생산 다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편백 등 고부가가치 목재를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등 원자재 공급을 통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했다. 또한, 보성군 내에 있는 '대한다원', '제암산휴양림', '산도산림경영 체험'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봉화산 선도단지는 산주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고 있고, 두릅·황칠 등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를 꾸려 산주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주·지역주민, 경영주체(보성조합),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운영협의회도 매년 3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부가가치 높은 '편백' 조림으로 산림소득 'UP'

봉화산 선도단지는 '편백림 중심의 산림소득증대'를 단지 조성의 비전으로 삼을 정도로 편백림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선도단지에서 편백나무 숲 조성에 주력하게 된 것은 지역 내 편백을 활용한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단지 주변에는 편백나무 목재 가공과 판매 등을 담당할 굵직한 제재소가 11개소 이상 있고, 지역 내에 임산물 가공업체 또한 다수 있어 편백나무 원목부터 잎, 가지까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봉화산 선도단지는 지역 내 관광자원도 적극 활용했다. 연간 20만 명 가까이 찾는 제암산휴양림에서는 임산물 엑기스, 묘목, 산나물 등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매년 약 10만 명이 방문하는 대한다원에서는 편백나무 가공품, 두릅 등이 유통되고 있었다. 선도단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역 내 인프라를 철저히 분석해 경영주수종을 편백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조림에 나선 것이다.

봉화산 선도단지의 편백림 집중 조성은 산주·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데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단지 내 대부분 산주는 특별한 수종 관리가 필요 없을뿐더러 목재 가치도 우수한 편백나무의 식재를 선호했다.

편백나무는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균·살균·진정효과·면역력 향상 기능까지 있어 최고급 내장재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제품으로까지 활용되고 있기에 편백림 조







03 숲가꾸기 사업 후의 봉산리 편백조림지
04 황칠나무
05 두릅나무

성에 따른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사업 초기 선도단지에는 전체 면적의 22.6%인 570ha에 편백나무 위주의 편백림이 조성돼 있었으며, 사업 기간 내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진행해 2021년 말 기준으로 기존보다 259.8ha를 늘린 829.8ha까지 편백림을 확대했다. 사업종료 전까지 편백림을 20ha 이상 더 확대할 계획이다.
편백림 조성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형질이 불량한 임지를 임목 수확과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편백림으로 바꿨다. 기존 펄프재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원목 중심의 원자재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보성조합에 따르면, 향후 편백 원목 중심으로 원자재를 납품하였을 시 펄프재보다 1ha당 765만 원의 수익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나물의 왕이라고도 불리며 독특한 맛과 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릅의 별칭은 '봄의 보약'이다. 두릅은 단백질이 많고, 섬유질, 칼슘, 철분, 비타민B_1·B_2·C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화 방지, 눈의 피로 해소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 혈관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효과를 지닌 두릅은 최근 임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보성 봉화산 선도단지에서는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바로 이 두릅에 주목했다.
경영주체인 보성조합에서는 사업비 약 10억3,200만 원을 들여 선도단지 내 두릅·황칠 등의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꾸렸고, 지난해까지 두릅은 32.9ha, 황칠은 62.9ha 조성을 완료했다. 2023년까지 6,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재배단지 면적을 5ha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산한 두릅을 현재 보성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해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작한 두릅 재배단지 조성으로 인해 약 3년간 4억2,800만 원의 단기소득을 내고, 19명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봉화산 선도단지는 두릅에 이어 황칠나무도 특화임산물로 선정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에 나서고 있다. 황칠나무는 내한성이 약해 따뜻한 남해 지역인 보성에서 생육하기 매우 적합한 수종으로 병충해 피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비교적 쉽고 도료·식품·수액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가공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물로 부상 중이다.



06 봉산리~마천리·정흥리 임도 작업로

산주·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봉화산 선도단지

봉화산 선도단지는 산림경영의 필수 기반 시설인 임도를 현재까지 52.62㎞ 개설했다. 상향식 임도 노선을 지양하고 하단부 평행식 임도를 개설해 효율성을 높였고, 대형 산림경영 작업장을 함께 설치해 대형차량 진·출입 용이성을 높였다.

불량림에 대한 임목벌채사업을 추진해 조림사업의 산주 참여도와 산림경영 의지를 높이기도 했다. 선도단지 내 불량림을 대상으로 직접사업을 통한 경제수 및 특화임산물 수종 갱신을 추진하고, 벌채 산물을 전량 수집·활용해 산주의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특화임산물 재배기반 조성을 병행해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임지 내 부산물을 땔감으로 활용해 지난해 10톤 가량을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에 지원해 단지 주변의 마을 복지에도 힘썼다.

9년 차에 접어든 봉화산 선도단지의 굵직한 성과로는 기본계획에 의한 목재생산림 조성,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산주 수익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등이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봉화산 선도단지 일대가 궁극적으로 사유림 경영 모델림(林)으로 거듭나게 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산주·임업인의 산림경영에 관한 관심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고품질 목재생산을 통한 산림경영 체계 확립, 임산물 생산 활성화 등으로 산림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봉화산 선도단지 경영주체인 보성조합에서는 산주 소득증대에 더 힘쓸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경영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등으로 목재생산림(편백나무)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유림 경영 성공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제재소와 연계해 벌채를 통한 산주 소득증대뿐 아니라, 조림대상지를 확보, 황칠·두릅 등 특화임산물 재배를 통한 단기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